

골 방 기 도

(2024-02)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 기시고” 창세기 15장 5~6절 말씀

아브라함은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무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 마사코리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 보며, 이 막막한 절대벽 같은 카넬왕국 선교의 미래에 대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이번 한 주 마 사코리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묵상하며, 우리를 주의 선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한 시간을 보내습니 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야 할 일은 영혼들이 있어 그 걸음을 순종하며 따라갈 누군가를 찾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사코리 사역

하나, 지난 1월30일은 마사코리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 오노레집 큰 나무 그늘에서 최초로 솔크 제1회 음악회가 열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삭막한 모래 위 에서 그늘 하나 의지하여 정성 다해 음악회를 열어 주신 솔크에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여 듣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신선하고 마음 따뜻하게 다가가는 행복한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울, 아브리 센터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월21일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 공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재정이 채워지진 않았지만, 귀한 장로님 한 가정의 헌신으로, 작지만 마사코리 아이들이 언제나 찾아와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접촉들 이 이루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세엣,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 다. 그래서 차드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모두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팀멤 버 중 서광/이은비(하성,하민) 선교사 가정이 마사코리 아브리 센터에서 카넬왕국 선교를 위 해 동역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 선교에 함께 하지만, 마사 코리라는 어려운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한 귀한 선교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 가 갑절이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자라 나길 기도해 봅니다.

네엣, 오늘 오전에는 아브리 센터 주변의 이웃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아 주었 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걸어 주었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길, 그 래서 이 땅에 주님의 계절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투크라 중학교 건축과 사역들

투크라 교회 통해 세워진 초등학교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

다. 6학년 졸업반이 생겨나면서 중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귀한 헌금을 통해 중학교 교실 3칸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투크라 중학교 통해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미래의 차드 인재들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난 12월 말엔 암바타에서 EEMT 청소년 약 18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회가 CCMFT 신임 선교사 중심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말씀 간증 집회와 함께 느헤미야 성경공부, 다양한 소그룹 세미나, 여러 기타 활동들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EEMT 현지 교단 안에 중고등부 개념이 없어 유년주일학교 이후 신앙적 돌봄이 없던 청소년들에게, 장래 비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석한 청소년들이 받은 은혜를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나아가 교회에 중고등부를 위한 운동이 생겨나길 기도합니다.

24년에도 먼 차드까지 여러 단기팀들이 사랑을 가득 담은 채 방문해 주셨습니다. 12월 치과 단기팀과 말씀세미나, 1월에서 2월 초엔 신암교회 단기팀과 상담팀, 비전50팀 그리고 솔크 음악 단기팀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차드 선교를 섬겨주셨습니다. 다녀가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선교의 은혜가 넘쳐나고, 섬기신 모든 현지 교회들과 어린이들, 청소년들, 사역자들 가운데 사랑과 말씀의 흔적이 깊게 새겨지길 기도해 봅니다. 선교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의 연합 사역임을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차드에 동역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하며

여러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찬우가 약대를 잘 졸업하였고, 헤민이는 사역자로 섬기며 신대원 2학년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부는 본국 사역 기간 중 4개월 차드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남은 본국 사역 기간과 마사코리 정착하는 일, 건강,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제나 사랑과 헌신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최근에 “선교는 공동체 사역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골방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영육간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편지를 적고 차드의 야당대표 사망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5월 1차, 6월 2차 결선투표, 7월 대선결과 발표 등의 일정이 있는데 혼란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차드 양승훈 최영주 선교사 올림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차드 사랑